廉　義　篇

印觀 賣綿於市 有署調者 以穀買之而還 有鳶 攫其綿 墮印觀家 印觀 歸于署調曰、鳶墮汝綿於吾家 故 還汝。署調、攫綿與汝 天也 吾何爲受。印觀、然則還汝穀。署調曰、吾與汝者 市二日 穀已屬汝矣 二人 讓 幷棄於市 掌市官 以聞王 並賜爵。

⇒인관(印觀)이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솜을 팔 때 서조(署調)라는 사람이 곡식으로 그것을 사가지고 돌아갔다. 이때 어느 솔개가 그 솜을 채가지고 인관의 집에 떨어뜨렸다. 인관은 서조에게 이 솜을 되돌려주며 말하기 “솔개가 당신의 솜을 우리집에 떨어뜨렸으므로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하였다. 서조가 말하기를, “솔개가 솜을 채어 당신에게 준 것은 하늘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라고 하였다. 인관이, “그렇다면 당신의 곡식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서조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에게 준 뒤에 두 번이나 장이 지났으니 곡식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이와 같이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다 시장에 버렸다. 장시관(掌市官)이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은 이 두 사람에게 나란히 벼슬을 주었다.

⇒印観という人が市場で綿を売る時に署調という人が穀食でそれを買っていて帰った。この時ある鳶がその綿をひったくられて印観の家に落とした。印観は署調にこの綿を渡しながら言うことは“鳶があなたの綿を我家に落としたのであなたに返します。”とした。署調が言うのに、“鳶が綿をひったくってあなたに与えたことは天がしたのです。だから私がそれをどうして受けますか？”と言った。印観が、“それならあなたの穀食を返します。”と言った。

署調が言うのに“私があなたに与えた後に二回も市場が経ったから穀食はもうあなたの物です。”と言った。二人がこのようにお互いに遠慮している途中綿と穀食をすべて市場に捨てた。掌市官がこの事実を王様に申し上げたら王様はこの二人に並んで官職を与えた。

洪夔燮 少貧甚無料 一日早 婢兒踊躍獻七両錢曰、此在鼎中 米可數石 柴可數駄 天賜。公驚曰、是何金。卽書失金人推去等字 付之門楣而待 俄而姓劉者来問書意 公 悉言之 劉 曰、理無失金於人之鼎內 果天賜也 盡取之。公 曰、非吾物 何。劉 俯伏曰、小的 昨夜 爲窈鼎来 還燐家勢蕭條而施之 今感公知廉价 良心 自發 誓不更盜 常侍 勿慮取之。公 卽還金曰、汝之爲良則善矣 金不可取 終不受。後 公 爲判書 其子在龍 爲憲宗國舅 劉亦見信 身家大昌。

⇒홍기섭(洪夔燮)이 젊었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가난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어린 여종이 기뻐 뛰면서 돈 일곱 냥을 갖다 바쳤다. “이것이 솥 속에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쌀이 여러 섬이고 땔나무가 여러 바리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공(公)이 놀라 말하기를,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며 곧 돈을 잃은 사람은 그 돈을 찾아가라는 등의 글을 써서 문 웃설주에 그것을 붙이고 기다렸다. 이윽고 성이

유(劉)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글의 뜻을 물었다. 공이 하나도 빼지 않고 그 사실을 말하자 유씨는 말하기를,“남의 집 솥 속에 돈을 잃어버릴 리(理)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갖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했다. 공이 말했다. “내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갖는단 말이오?”

유씨가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소인이 어젯밤 솥을 훔치러 왔다가 공(公)의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해 보여서 오히려 가련하게 여겨 이것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공의 마음이 청렴하고 아름다우신 것을 보고 감복하였습니다. 양심이 스스로 일어나 앞으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청컨대 공을 항상 모시고 싶사오니 안심하시고 돈을 받아주십시오”하였다. 공이 즉시 돈을 돌려주며, “당신이 선량한 사람이 된 것은 좋은 일이오. 그러나 돈은 가질 수 없소”하고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았다. 후에 공은 판서가 되었고 그의 아들 재룡(在龍)은 헌종(憲宗)의 장인이 되었으며 유(劉)씨도 역시 신임을 얻어 몸과 집안이 크게 번창하였다.
⇒洪夔燮が若かった時言葉で表現しにくい位にひどく貧しかったがある日朝早くの幼い女の手伝いが嬉しくて走りながらお金七両を持って捧げた。“これが釜の中にありました。これ位ならば米が何石で薪が何束です。これは天がくださったのです。”

公が驚いて言うのに“これが何のお金なのか？”としてすぐお金を失った人はそのお金を捜して行きなさいという文を書いて門の上にそれを貼って待った。やがて性が劉さんという人が尋ねて来てその文の意味を聞いた。公が一つも隠さずその事実を言うと劉さんは言うのに“他人の家の釜の中にお金をなくしてしまうわけ(理)はないです。これは天がくださったことなにどうしてそれを持たないですか？”と言った。公が言った。“私の品物ではないのにどうしてそれを持つという話です？”

劉さんがひざまずいて伏せて言うのに“小人が昨晩釜を盗みに来て行って公の家の都合が非常に貧しく見えてむしろ可憐に思ってこれをおいて帰りました。もう公の心が清廉で美しいことを見て感服しました。良心が自ら起きてこれから二度と盗みを働かないと誓ってお願いだから公をいつも仕えたいですから安心してお金を受け取って下さい。”とした。公が直ちにお金を返して、“あなたの善良な人になったことは良いことだ。しかしお金を受けることは出来ません。”と結局そのお金をもらわなかった。後に公は判書になったし彼の息子在竜は憲宗のしゅうとになったし劉さんもやっぱり信任を得て身と家が大きく栄えた。

高句麗平原王之女幼時 好啼王 戲曰以女 將歸于愚溫達。及長 欲下家于上部高氏 女以王不可食言 固辭 終爲溫達之妻。先時 溫達 家貧 行乞養母 時人 目爲愚溫達也。一日 溫達 自山中 負楡皮而來 王女訪見曰、吾乃子之匹也 乃賣首飾而買田宅器物 頗富 多養馬以資溫達終爲顯榮。
⇒고구려 평원왕(平原王)의 딸이 어렸을 때 울기를 좋아했다. 왕이 농담으로 너를 장차 바보온달(溫達)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였다. 공주가 다 컸을 때 상부고씨(上部高氏)에게로 시집 보내려 하니 딸이 임금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며 굳이 사양하고 마침내 온달의 아내가 되었다.

온달은 가난해서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니 그때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그를 바보온달이라 불렀다. 어느날 온달이 산속으로부터 느티나무 껍질을 짊어지고 돌아오니 임금의 딸(공주)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하고 수식(首飾)을 팔아 밭과 집과 기물을 사서 매우 부유해졌는데 또한 말을 많이 길러서 온달을 도왔다. 그래서 마침내 온달은 이름이 빛나고 영화롭게 되었다.

⇒高句麗平原王の娘が幼い頃泣くのが好きだった。王が冗談でお前を将来ばかの温達に嫁がせると言った。公主が大きくなった時上部高氏に嫁がせようと思ったら娘が王様は嘘をつくことができないと言うし敢えて遠慮して遂に温達の妻になった。

オンダルは貧しくて物乞いしてお母さんを奉養したらあの時人々がこれを見て彼を温達と呼んだ。ある日温達が山奥からけやきの皮を担って帰って来たら王様の娘(公主)が尋ねて来て言うのに“私がまさにあなたの妻です。”と首飾を売って畑と家と器物を買って非常に富裕になったがまた馬をたくさん育てて温達を助けた。それで遂に温達は名前が輝いて栄えるようになった。